

뱅크드 벤치마크 변경영향

뱅크드의 벤치마크 변경 영향만을 감안할 때,
7월 3일까지 주간 평균 4,000억 내외 매도압력 존재,

그러나 최근 신흥공업국으로 자금유입을 감안할 때,
전반적인 외국인 수급의 불균형은 제한적으로 발생될 듯

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

뱅크드의 벤치마크 변경

- 세계 최대의 ETF 운용사인 뱅크드는 운용비용을 축소하고자 MSCI 지수를 사용했던 6개 펀드의 벤치마크를 지난 10일(현지시간)부터 FTSE로 변경. 결국 2013년 6월 말 이후 뱅크드는 FTSE 지수에 따라 운용.

- 한국은 MSCI에서는 신흥시장에 속하지만 FTSE에서는 선진시장으로 분류.

- 벤치마크의 변경으로 뱅크드 펀드 내에서 선진국지수 추종 펀드는 한국을 새로 편입해야 하고, 신흥국 지수 추종 펀드는 한국을 제외해야 함.

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자금유출입 예상 규모

- 현재 뱅크드 펀드의 총 운용규모는 1,700억 달러 정도로 알려지고 있음. 이중 1,000억 달러가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고 나머지 700억 달러가 신흥국 지수를 추종.

- 전세계 시장의 시총기준(MSCI)으로 보면, 선진국 대 신흥시장이 약 8:2 정도

- 즉 뱅크드의 경우 신흥시장 펀드가 상대적으로 큰 상황(6:4).

- 한국은 신흥국에서 약 17%, 선진국에서 약 2% 비중 차지.

-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추종 1,000억 달러에서 2%인 20억 달러 내외가 유입되고,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는 700억 달러에서 17%인 119억 달러 내외가 유출.

- Net으로는 약 100억 달러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셈.

시장 수급상황에 미치는 영향은?

- 뱅크드가 지난 1월 9일 FTSE Emerging Transition 지수를 발표하며 신흥시장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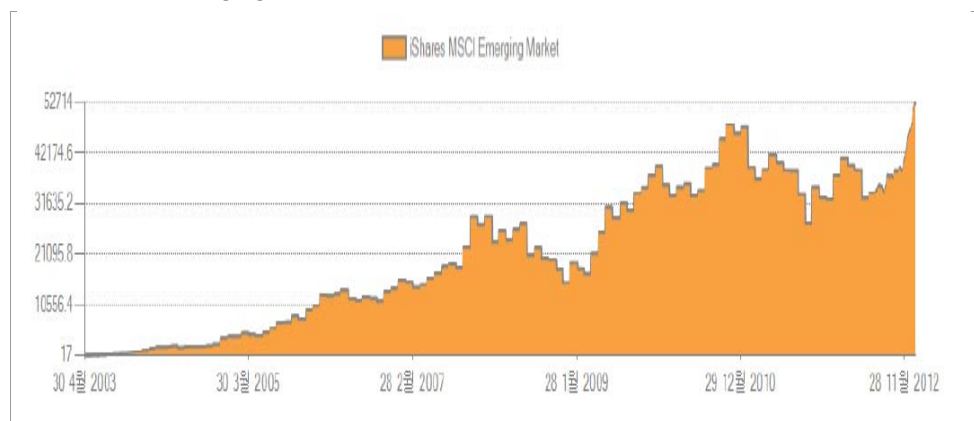
- FTSE Emerging Transition Index는 지수변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임시 벤치마크지수로 한국 비중을 매주 수요일 4%씩 줄여서 25주 뒤 (7월 3일)에는 한국 비중이 0%가 되도록 설계.

- 즉 약 4,000억 원의 매도압력이 25주간 발생할 전망.

급격한 수급불균형의 가능성 낮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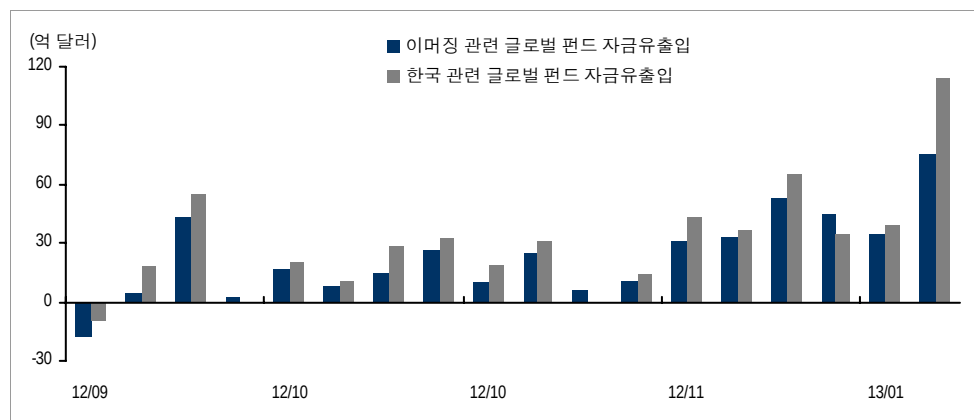
- 하지만 이로 인해 국내 증시의 급격한 수급 불균형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.
- 단기적으로는 뱅가드의 경쟁사인 블랙록의 iShares 신흥국 ETF가 매도물량을 일정 부분 흡수할 가능성인 높음.
- 실제 뱅가드가 신흥시장 ETF의 벤치마크를 FTSE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이후 동 펀드에서 13억 달러의 자금이 유출된 반면, MSCI를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iShares 신흥국 ETF로는 90억 달러의 자금이 순유입.
- 거시적으로 글로벌 자금이 상대적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이머징으로 유입되고 있어, iShares 신흥국 ETF의 한국 주식비중 확대가 이어질 듯.
- 최근 이머징 및 한국관련 글로벌 펀드로의 자금유입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.

iShares MSCI Emerging Market ETF 총자산 추이



자료: Datastream

이머징 및 한국 관련 글로벌 펀드 자금유출입 추이



자료: Datastream